

교안 개발 : 허니에듀
 허니에듀는 '공부가 풀처럼 달콤한 세상'을 꿈꾸는 교육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유초등맘들의 커뮤니티 허니에듀를 운영하며 다양한 독서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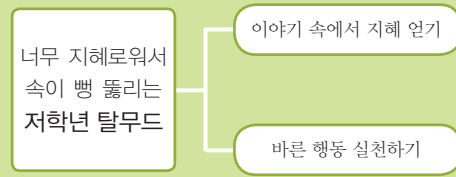
너무 지혜로워서 속이 뱅 뚫리는 저학년 탈무드

김정완 · 서유진 글 | 유정연 그림
 키움 | 11,000원 | 134쪽 | 초등 저학년

책 소개

이 책은 20가지 탈무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교육법인 '질문 공부법'에 따라, 이야기를 읽고 초등학생의 궁금증에 대해 전문가가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책을 읽으며 바른 행동에 대한 기준과 변치 않는 가치를 배우며 올바른 인성을 배워 나갈 것입니다.

독후활동 주제망



독후활동 시작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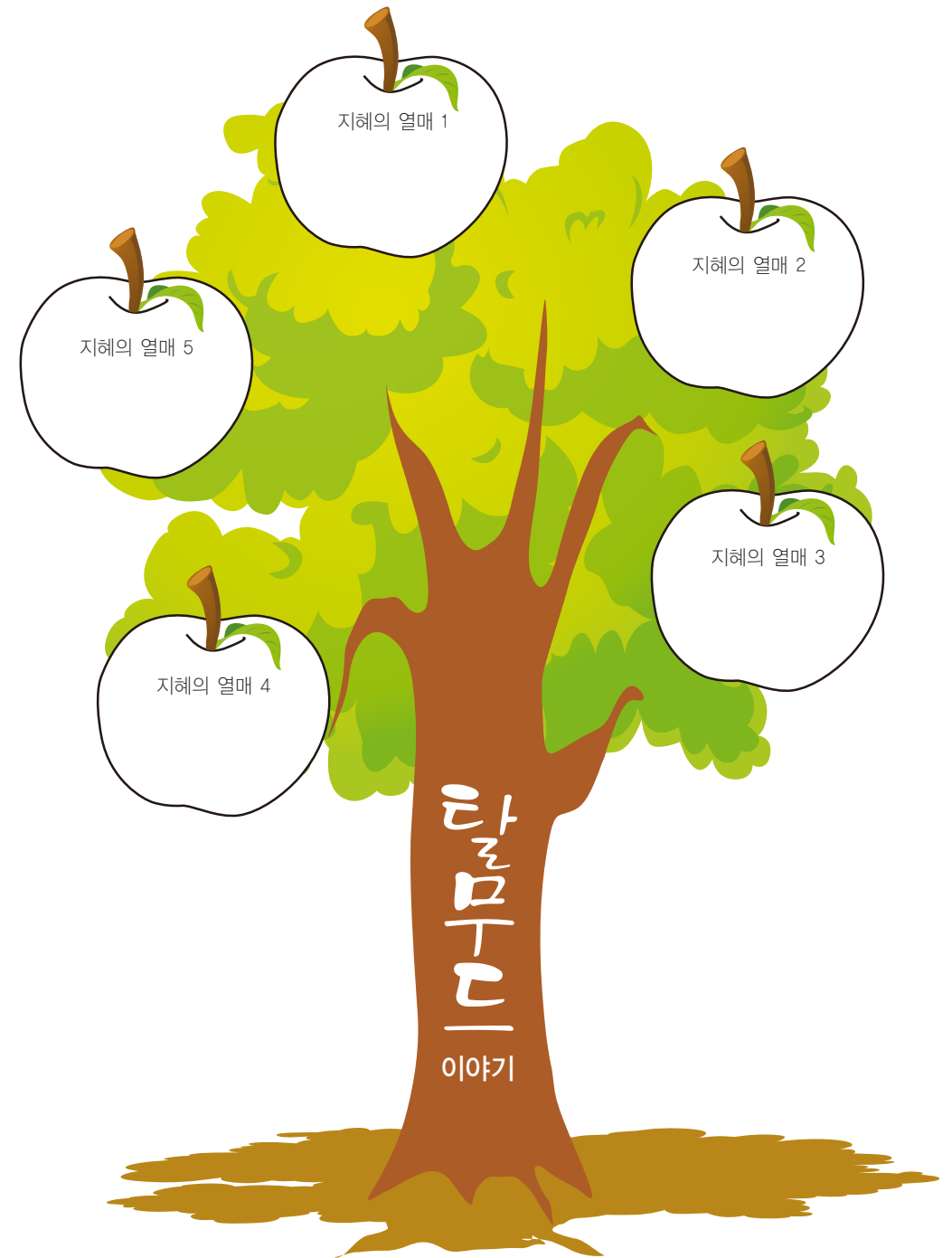
본래 탈무드는 '토론 책'이라고 해야 더 어울릴 정도로 질문과 답변, 그리고 토론이 치열하게 부딪치는 역동적인 책이에요. 이 책에 실린 20가지 이야기에 제시된 각각의 질문 외에,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른 질문이나 토론거리가 떠오른 것을 써 보고, 이 주제에 대해 선생님 또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 (예) ▷ 어느 이야기에 대한 것인가요? ⇨ <누구의 금화일까?>
 ▷ 어떤 질문이나 토론거리가 떠올랐나요?
 ⇨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 준다고 해서 항상 다툼이 쉽게 해결되는가?
 ⇨ 정의를 지키는 것보다 평화를 앞세우는 편이 나은 경우가 언제인지를 어떻게 알까?
 ⇨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 ▷ 어느 이야기에 대한 것인가요? ⇨
 ▷ 어떤 질문이나 토론거리가 떠올랐나요?
 ⇨
 ⇨

독후활동 주제 1 이야기 속에서 지혜 얻기

탈무드는 '지혜의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깊고 넓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20가지 이야기를 읽고,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얻게 되었나요? 아래 탈무드 이야기 나무에 열린 지혜의 열매 5개에 내용을 써넣고 예쁘게 색칠해 보세요.




자기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

1. 자기를 스스로 다스리려면 시시때때로 드는 나쁜 마음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것도 혼자서요. 여러분이 혼자서 이겨내야 할 나쁜 마음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예)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 부리기

①

②



2.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여 불편한 상황을 좀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것 참 좋은 생각이군요!


①

②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3. 남에게 들은 험담한 말, 부당한 대우 등은 대화로 해결하세요. 속상했던 마음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오해를 풀어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마음이 넓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원망하는 마음을 남겨 둔 경험을 써 보세요.

⇒



4. 따르는 사람은 없고 이끌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대표를 잘 도와주고 밀어줄 때, 그 공동체는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지요.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우기다가 결국 불구덩이에까지 뛰어든 뱀의 꼬리가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행동을 어떻게 고칠까요?

⇒



5. 가족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형제자매끼리 더 나누고 더 친절을 베풀어야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형제자매에게 내 것을 나누어주거나 친절을 베풀은 적을 떠올려 봅시다.

① 형제자매 중 누구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었나요? 또는 누구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었나요?

② 어떤 기분 또는 생각이 들었나요?


“잘생겼다.”
“아름답다.”
“잘샀다.”
“신부가 정말 아름답다!”

6.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였을 때, 진실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그것을 생명이 위협할 때와 평화를 지켜야 할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써 보세요.

(예)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불치병 환자에게 말할 때

①

②



7.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과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마다 누구 탓을 하고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남 탓을 하기 전에 자기 마음가짐을 바꿔 보면, 문제를 헤쳐 나갈 방법이 보인답니다. [못생긴 언니와 욱 잘하는 동생] 이야기에서 왼쪽 그림과 같은 판결을 내린 판사의 숨은 뜻은 무엇일까요?

⇒

※ 예시답안은 허니에듀 또는 어린이책사랑모임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허니에듀밴드 : band.us/@honeyedu • 허니에듀카페 : <http://cafe.naver.com/honeyedu> • 어린이책사랑모임카페 : <http://cafe.naver.com/cheknoa>